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사설시조 향유층 논란을 중심으로 —

류 수 열* · 이 지 선** · 김 세 림***

목 차

1. 서론
2.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3.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교육 담론의 검토
4. 학술 담론과의 관계를 통해 본 교육 담론의 특성
5.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소통 활성화 방안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소통 방안에 대해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교육 담론이 학술 담론에 의존하여 생성되는 의존성을 띠는 동시에 생성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통해 지식을 고착화하는 독립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해석이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교육 담론에서는 학계의 유력 학설을 배제한다는 점과 해석에 활용하는 개념이 모호하거나 무매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 담론의 독립성은 이를 고착화시킨다. 그러나 학술계에서 논쟁이 되는 가설은 오히려 교육적 가능성 측면에서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계가 학술계와 소통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재 차원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교사들에게는 교육계와 학술계의 담론 차이를 연구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 **핵심어** : 사설시조, 향유층, 문학교육, 학술 담론, 교육 담론, 소통 방안

1. 서론

통상적으로 학술 담론에서 생성된 지식은 교육 담론으로 전이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된다. 문제는 교육 담론에서 학술 담론과 간극을 지닌 지식이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지식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재생산되면서 고착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설시조의 향유층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학술적인 지식 사이에 형성된 간극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문학 지식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밝히는 한편, 이 간극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교육 현장과 학술 현장은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다. 그러나 학술 지식의 ‘생산’ 주체가 연구자들이고 현장의 교사들은 지식을 ‘유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체의 차이로 인한 간극이 필수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 생산된 지식이 교육 현장에 유입되는 데는 시차(時差)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차만이 이 간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술 현장에서 새롭게 정립된 지식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과거의 설명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교육 현장과 학술 현장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빈번하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그 자체로 양식적 완결성을 지니는 가전체를 ‘설화와 소설 사이에 놓인’ 과도적 양식으로 규정하여 마치 서사 문학이 ‘설화 → 가전 → 소설’로 발달한 것처럼 기술한다던가, 시조 형식으로 보기에는 논란이 많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대해 ‘연시조’로 규정하는 일 등 많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거리를 조명하기 위해 여러 ‘거리’ 중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을 살펴려 한다. 사설시조는 ‘작가 미상’인 작품이 많아 작자층이 뚜렷하지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논쟁을 통해 향유층에 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왔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평민으로 보는 초기의 담론에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 지식은 학계에서 생산된 지식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유통된다. 한 번 사실로 통용되기 시작한 지식은 좁처럼 수정되기 어렵다. 두 담론 사이의 간극의 원인이 시차에 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마도 참고서나 자습서를 통해 잘못된 지식이 유통되고 재생산되면서, 교재의 성서화(聖書化)¹⁾를 무기로 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서는 간극의 존재를 두고 학교 현장의 ‘교과서적 지식’ 생성을 탓하며 다양한 각도로 비판을 가해 왔다. 비판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오류를 안고 있는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점과, 학습자들이 문학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지식을 일방적으로 ‘암기’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교육자들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되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주장에 그칠 수 있다. 오류를 안고 있는 지식이 지

1) 성서적 교과서관이란 교과서야말로 국어교육에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실체라고 보는 관점을 말한다. 교과서를 교육의 자료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교육되어야 할 실체라고 보아 학습자를 수동적이고 백지에 가까운 상태로 간주한다는 오류를 범한다.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에서 자세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어떤 기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논의는 두 현장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학계에서는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양반 혹은 중인 계층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평민들의 문학이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시조의 초기 연구에서 평민 문학이라 규정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까닭으로 보인다. ‘평민설’을 반박하는 논의에서는 사설시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고 보아 최소한 문식성을 지닌 중간 계층 이상이어야 향유 가능하다는 입론을 펼쳐 왔다.

텍스트의 창작 향유층은 정서 등의 내용 분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미적 특질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갈래의 발생 시기를 달리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향유층을 평민으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평민 미학과 계층 예술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지적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당대 사회상 역시 향유층에 따라 상반되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향유층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논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술 담론과 교과서를 비교하여 검토해서 각각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변별점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과서 담론 구조가 학술 담론에 어느 정도 의존성과 독립성을 지니는지 밝히는 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는 문학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동시에 교과서가 그간 어떻게 지식을 유통하고 재생산해왔는지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성장이라는 교육 내적 목적과 관련하여 이러한 간극이 지니는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2.1. 향유층에 대한 세 가지 입장

향유층²⁾을 보는 관점은 크게 교과서에서 거의 성서적 지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평민설과, 대중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중인설과 양반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중인설과 양반설을 함께 주장하기도 하는 등의 층차는 있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³⁾

(1) 평민설

평민설은 사실시조의 장르 논의에서 비교적 초기에 논의된 관점이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개괄한 최초의 국문학 개론서인 『국문학개론』에서 저자 고정옥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출현한 ‘서민 시조’를 ‘장시조’라 일컬으며 사실시조의 향유층을 언급했다. 그는 시조를 ‘평시조’와 ‘장시조’로 분류하고 그 중 장시조를 귀족 시조인 평시조와 대비되는 ‘서민’들의 시조라 규정했다.⁴⁾ 임병양관 이후 새로운 문학 담당층으

2) ‘향유층’ 개념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포함된다. 조혜숙(2003)은 작자층과 향유층을 아울러 ‘담당층’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였고, 고정희(2006)는 귀속신분보다 의식적인 지향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설명한 바 있다. ‘향유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남녀상하로 확장된 사실시조의 향유현상을 언급하고 사실시조의 문학사적, 문학교육적 의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나 이 논문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평민’과 ‘서민’의 용어에 대한 모호함은 3장에서 다루었다. 조혜숙, 「사설시조의 담당층과 문학적 성격」,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고정희, 「사설시조의 장형성과 이행기 문학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3) 본고에서 평민설, 양반설, 중인설의 세 가지로 입론을 구분한 것은 연구자들을 가늠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논지에 따른 구획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연구자와 1:1로 귀속시킬 수는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4) “장별(章別)의 불명료, 가사 또는 민요 운율의 도입, 새로운 종장 형식의 창조, 이야

로 떠오른, 귀족과 구별되는 중서층(中庶層)이 인간의 욕망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조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사대부가 아닌 계층으로 철저하게 분리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논의들에서 사설시조를 평민의 문학으로 보는 관점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하겠다.

그러다 보니 사설시조의 내용은 대체로 규범적인 평시조와 달리 탈규범성을 지닌다고 보고, 이를 사회상의 변화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정병욱은 사설시조를 이룩한 주동적인 작가가 평민가객들이라 하며, 사설시조의 발생 시점을 17세기로, 성행 시점을 18세기로 추측했다. 그는 조선 후기 평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소위 평민문학이 번성하였고, 그 일환으로 산문정신과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한 사설시조가 시조문학의 커다란 변화로 등장했다고 보았다.⁵⁾ 박을수 역시 역사 사회상과 관련지어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양난을 겪은 뒤 서민계급의 각성으로 산문정신이 발로되어 사설시조가 출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실학정신의 영향으로 평민계급에서도 문학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종래의 귀족들에게만 향유되어 오던 시조도 평민들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창작되었고, 산문화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모색 속에서 생겨난 것이 사설시조라는 것이다.⁶⁾

그 외에도 김윤식·김현⁷⁾, 박철희⁸⁾, 구자균⁹⁾, 임종찬¹⁰⁾ 등은 시조의 향

기의 침입 등은 그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데, 이들을 총괄해서 종래의 시조 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꼬집어 벌진댄 그것은 그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종래 시조를 '평시조'라고 하고, 여상한 근세 시조를 '장시조'라고 불러 시조를 이대분하는 것이다. ...사설시조의 대부분은 장시조에 속할 것이나, ...나는 귀족 시조는 평시조, 서민 시조는 장시조라고 이대분해서 시조 문학의 장르를 명백히 하고 저 하는 바다."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24면. 고정옥 저, 김용찬 교주, 『교주 고장시조선주』, 보고사, 2005, 71면에서 재인용.

- 5) 정병욱, 『시가의 운율과 형태』,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427-8면. 정병욱은 양반 사대부들이 사설시조 향유에 참여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 6) 박을수, 『한국시조문학전사』, 성문각, 1978, 95면.
- 7)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8)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유층을 평민으로 규정하며 평시조와 대립적인 장르로 보고 있으며, 그 근거로 서민의식의 각성, 산문화의 추세, 평민층의 문화 주체세력 성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사회상과 장르의 출현을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사설시조를 평민들의 작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를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이다. 사설시조가 평민들의 문학이라 본다면 고응척, 정철, 강복중 등의 양반 사대부가 창작한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양반’이 아니니 ‘평민’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신분 대별 역시 논리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이를 반박하며 학계에는 사설시조의 양반 사대부 향유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2) 양반설

사설시조를 평민들의 문학으로 본 연구들의 공통점은 시조에 나타나는 해학과 풍자가 사회 지배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양반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후기 평민이 벼슬을 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문식성이 전혀 없는 하층민들까지도 사설시조의 작자층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설시조의 주 작자층이 평민계층이라 주장했던 정병욱의 연구에서 양반 사대부의 참여도 일부 인정한 이래, 최동원은 고응척(高應陟, 1531~1605) 6수, 정철(鄭澈, 1536~1593) 2수, 강복중(姜復中, 1563~1639) 3수, 백수회(白受繪, 1574~1642) 2수, 채유후(蔡裕後, 1599~1660) 1수의 작품을 들어 사설시조의 시발점을 양반사대부들로 보았다.¹¹⁾ 이들은 모두가 사대부이거나 아니면 명문의

9) 구자균, 『평민문학사』, 민족문화사, 1982.

10)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 1986.

11) 최동원은 사설시조의 발생은 양반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나 그 발달은 서자출신의 가객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최동원의 논의를 (3) 중인설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에서 보는 5명의 작가는 사대부이거나 또는 명문의 후예들로

후예이며 이 가운데 평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장형시조는 평민들의 장르이거나 가객들의 장르라는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문헌적 근거에 의해 실증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양반설은 내용상 오락적이고 유희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희작적인 창작 분위기를 추론해 내는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김학성은 사설시조는 사대부 계층의 오락적인 분위기에서 형성,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¹²⁾ 시조는 사대부들의 성정을 순화하고 유교적 가르침을 되새기려는 뜻에서 노래되었으나, 양반들이 시종일관 진지하고 엄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술잔치의 오락적인 분위기에 걸맞게 그 내용은 점차 향락적인 것이 되어 갔고, 형식 또한 장황한 말을 담을 수 있도록 장형화하면서 사설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설시조의 형성이 사대부 계층의 오락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면, 그 담당층은 자연히 서민들보다는 양반들의 것에 가까웠을 것이다. 사설시조에 등장하는 인물형과 행위가 자기 계층의 체험에 의한 독백적 서술이 아니라 그보다 우월한 다른 계층(양반 문화권 혹은 그에 동조하는 계층)에서 희학적(戲謔的)인 장면을 설정하여 즐기고 있다는 점도 양반 향유설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¹³⁾

김대행 역시 사설시조의 음악성에 주목하여 주 작자층을 연회에서 취흥을 즐겼던 양반들이라 보았다. 연행 장소의 분위기나 연행상의 흥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가려져 왔던 은밀한 얼굴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며, 사설시조는 그 음악의 흐드러짐과 함께 숨겨 왔던 본능의 진면을 내보이는 내용을 담되, 이것은 다분히 극화된 형식으로, 그리고 희화화된 태도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⁴⁾ 사설시조는 사대부들의 사회적인

서 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장시조를 처음 생성시킨 계층은 양반, 사대부에 속하는 상층계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동원, 「장시조의 생성과 그 시대적 전개」, 『고시조론』, 삼영사, 1980, 61면.

12) 김학성, 「사설시조의 장르형성 재론」, 『대동문화연구』 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99면.

13)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05면.

14) 김대행,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390면.

가면보다 본능적인 진면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장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설시조의 작가가 미상인 이유도 근엄한 양반의 체면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한 데서 찾았다. 내용의 과격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므로 작품을 익명으로 세상에 내어놓았다는 것이다. 경건함과 음탕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 본능의 양면성이 양반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장사훈은 한문어투의 사설시조를 지을 수 있는 계층이라면 문자에 대한 소양을 지녔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¹⁵⁾ 따라서 사설시조를 양반 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한 텍스트로 보았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비속한 행위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실없이 농담하듯 관찰하며 놀이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조선 후기 사회에 사설시조를 주도적으로 창작했던 전문 가객인 중인계층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록 이들이 양반들에게 종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주요 작자층으로 보지 않기도 하나, 사설시조의 성행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중인들의 역할을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주 작자층을 조선 후기에 급격히 성장한 중인 계층으로 보는 견해들도 제시되었다.

(3) 중인설

사설시조의 평민 향유설에서 언급되었던 연구자 고정옥은 사설시조의 작자층을 ‘신진중인작가/창곡가/창극가/부녀자/기녀/민요시창자/몰락한 양반’으로 나누었다. 이때 중인 계층은 양반이 아니므로 서민¹⁶⁾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중서층(中庶層)은 중인을 포함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중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15) 장사훈, 『시조음악론』, 국악학회, 1973.

16) 김학성은 ‘서민’을 ‘시대를 초월하여 소수의 특권층에 지배받는 다수의 백성층을 지칭하는 것’이라 보았다. 김학성,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미의식』,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이후 고미숙은 사회 계급 구조의 맥락 속에서 사설시조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통해, 사설시조의 사회적 토대를 중세적 관념이나 기득권으로부터 이탈해 있으면서 또한 민중적 삶과도 일정한 거리에 있는 중간 집단¹⁷⁾이라 결론지었다. 중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중간 계층이 사설시조 향유에 참여하였고, 가객층이 활동을 시작한 17세기 이후에는 주체적으로 사설시조를 향유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즉 조선후기 생산력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기반한 물질적 부의 결합이라는 사회 변화가 중간계급을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중인, 서리층의 이론적, 창작적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¹⁸⁾ 사설시조의 형성은 양반에 의한 것임을 일부 인정하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인들이 사설시조 성행의 주역들이라 보는 점이 다르다.

최동원은 중인 가객들이 중심이 되어 사설시조를 발달시켰고, 일부 양반 계급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주역은 서리 출신의 중인 가객들이었다고 주장했다.¹⁹⁾ 또한 강명관은 조선후기 사설시조의 주된 창작 향유층이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중간 계층이었음을 확신하면서, 진본 『청구영언』에 수록된 사설시조의 대부분은 중간 계층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중간계층의 음악계로의 대두와 사설시조의 성행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²⁰⁾

사설시조의 중인 향유설은 중인 계급의 사회적 위상 강화, 조선후기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평민 향유설과 공유되는 근거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계층의 향유설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중인 계층의 성장이 사설시조의 향유와 맞물려 있다면 사설시조는 더 더욱 흥했어야 하나, 사실상 20세기 이후에는 쇠퇴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17)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1991, 66면.

18) 고미숙, 위의 글, 68면.

19) “그리하여, 장시조는 서자 출신의 가객들이 중심이 되어 발달시킨 문학이었다. 물론 여기에 중인 및 일부의 양반 계급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주역이 서자 출신의 가객이었음은 위의 표에서도 나타나 있다.” 최동원, 위의 책, 75면.

20)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4, 민족문학사학회, 1993, 420면.

현재 학계에서는 평민설은 거의 거세되어 있는 상황이다. 양반 사대부설과 중인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며, 이 둘을 아우르는 관점²¹⁾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평민으로 보는 관점의 기저에는 사실상 사설시조의 미적 특질로 보아 주된 향유층이 귀족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으며, 사회사와 문학사를 직결시킨다는 논리적 한계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계에서 여전히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평민으로 보는 논의가 지배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하겠다.

2.2. 향유층 논란의 외연(外延)

(1)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

사설시조 향유층을 평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설시조에 대해 ‘평민적 익살, 풍자와 분방한 체험을 표현’했다는 식으로 비평하곤 한다. ‘비판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는 사대부 문학과 대조적으로 ‘개혁’적이며 새로운 문학 정신을 창조한 서민문학으로서 평가되는 것이다.²²⁾ 교육계에서도 사설시조의 특징을 ‘현실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반어, 중세적 고정관념의 거리낌 없는 풍자, 고달픈 생활에 대한 해학’ 등이 거침없이 드러난다는 점, 남녀 간의 애정 문제와 관련하여 성욕과 성행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 등을 꼽는다.

그러나 평민 문학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저항성이나 에로티시즘 등은

-
- 21) 다음의 글에서는 양반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다만 서민문학과 활발하게 교섭하였고, 나중에 하층의 전문 작가들에게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조태영, 「사설시조의 향유층」,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1986, 390-391면.
- 22) ‘귀족 문학이 단아한 형식미에 극도의 신경을 구사한 데 반해 서민 문학은 대체로 조잡하고 용만하다. …귀족 문학은 지나친 형식 윤리의 질곡 속에 폐쇄되어…비판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 대해서 서민 문학은 과거의 전통의 기탄없는 개혁자이며 새로운 문학 정신의 창조자다.’ 고정옥 저, 김용찬 교수, 앞의 책, 289면.

계급을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한편으로 사설시조의 주제들이 일괄적으로 저항적이거나 에로티시즘적인 것만은 아니며 교화적이고 현학적인 주제들도 많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면밀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사설시조 작자층 논의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향유층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해석과 미학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해되는 ‘평민의 저항 정신’과 ‘에로티시즘’을 담은 다음 두 편의 시조를 그 사례로 보기로 한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회 치드라 안자
 깃년 山 바라보니 白松鵬어 ㅈ 잇거늘 가슴이 금즉호여 풀덕 뛰여 내뒸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처라 놀넨 널석만정 에힐질번 호쾌라

(靑丘永言 珍本 520)

이 시조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있다가 백송골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엎어져서는 허장성세를 부리는 모습을 그린 사설시조이다. 이 작품은 평민들의 저항 정신을 담은 대표적인 사설시조로 알려져 있다. 전술한 대로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어느 계층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 시조의 해석과 비평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작품의 향유층을 평민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시적 화자인 그들이 파리에 대해 공감하는 동시에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두터비의 회화화로 나타내게 된다. 즉 탐관오리에 대한 평민들의 분노와 야유를 담은 표현으로 시어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향유층을 양반으로 볼 경우에 이 작품의 시적 화자인 사대부가 탐관오리를 지적으로 비판하고 평민에 대한 연민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대부 계층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계급적 자성 혹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쇼실랑 일허며 열 지가 오늘날조차 三年이오런이
 轉轉티티 聞傳호 關氏네 房구석의 서 잇드라 호 데
 가지란 다 찢쳐 쓸질아도 ㅅ르 들일 곱엿이나 보에게

(海東歌謠 一石本 0562)

사설시조를 민요와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사실상 피압박층의 노래로 보는 한 연구²³⁾에서는 위의 시조를 ‘쇼시랑과 ㅅ로 드릴 구멍’이라는 비유를 활용해서 직설적으로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의 미학이 “봉건적 질곡으로 작용해 온 ‘개성의 억압’과 ‘애정의 사회적 규범에의 종속’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사랑과 개인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인간 해방’의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한다. ‘쇼시랑과 ㅅ로 드릴 구멍’ 또한 평민들의 실생활에서 배태된 표현으로서, 평민들이 이 시조를 부를 때는 적극적이고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라도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들을 향유층으로 설정한다면 시조의 미학적 변별점이 달라진다. 양반 사대부 또한 남성으로서 자신의 성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상상력을 통해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하는 시조로 해석될 수 있다. ‘봉건적 질곡’과 같은 시대적 접근에 기반한 해석과는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탈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성적 판타지를 해학적으로 그려낸 희작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성과 관련된 직설적인 사설시조들은 그 내용이 작자의 생활에서 배태된 것인지, 사대부가 가면을 쓰고 유흥삼아 발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해진다.²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어조는 과연 평민들만의 것일까? 양반들의 문학을 대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욕망을 소거한 채 비평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지는 지점이다.

23) 김용찬,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사, 2002, 427-428면. 김용찬은 기본적으로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중간 계급으로 본다.

24) 김대행,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2) 전제된 인간관

사설시조의 미적 특성을 해학과 풍자, 에로티시즘이라 볼 때, 작자층 혹은 향유층 논란은 이를 초계급적 보편성으로 보느냐, 계급적 특수성으로 보느냐의 문제를 낳는다.

사설시조의 특성이 계급적 특수성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은 ‘직설적인 어조로 저항’하며 ‘에로티시즘에 솔직’한 것은 평민 계급의 특수성이며 사대부 계층은 고아하고 전아한 미적 취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두 계급이 각각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반면 ‘에로티시즘’을 초계급적 보편성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욕망이 어느 계급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풍자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 역시도 초계급적 보편성의 한 표지로 읽을 수 있다. 동양적 전통에서의 ‘풍자’가 대상의 어리석음이나 모순점을 바로잡고 교정해 나갈 것을 바라며 행해지는 문학적 방식일 뿐 아니라,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고 참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민풍을 교화하고자 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는, 한층 적극적인 문학의 표현양식²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대부들이 자신이 속한 양반 계급을 풍자하는 것이 계급을 초월한 보편적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규범적이며 도학적인 지향만이 사대부 문학의 특질은 아니었을 것이며,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양반 혹은 유희적 인간으로서의 양반 등의 모습을 전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와 평시조는 미의식이나 주제의식 면에서 변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임제와 한우, 정철과 진옥이 주고받았다는 수작 시조에서 보듯이, 에로티시즘은 사설시조만의 배타적 작품 세계는 아니다. 만일 노골적이거나 진솔한 표현이 평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배태된 것으로만 본다면, 이는

25) 지신호,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347면.

평민들이 천박하게 놓고 상스럽게 말하는 부류라는 편견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반대로 양반들은 항상 경건하고 위엄을 추구하는 계급으로 치부하여 두 계층을 평면적으로 구별하기 십상이다. 사설시조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에로티시즘을 평시조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사설시조의 작품에서도 유교적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²⁶⁾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례를 보기로 한다.

漁村에 落照^호고 江天이 一色인 제
 小艇에 그물 싣고 十里 沙汀 내려가니 滿江 蘆荻에 霞鷺은 셋거 ㄴ 靑 桃花流水
 에 鱖魚는 ㅅ 鯈^노된 柳^稿邊에 버를 매고 고기 주고 술을 바다 醞^酒케 醉^후에
 疑乃聲 부르면서 ㄷ을 ㄷ 靑 도라오니
 아마도 江湖 至樂은 이 뿐인가 하노라.

(靑丘永言 가람本 568)

위의 작품에서 지배적인 미의식은 우아미이다. 이는 강호가도로 대표되는 평시조와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사설시조에 속하는 상당수의 작품들이 그 지배적인 정서나 미의식을 평시조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서민의식의 성장’ 등의 설명으로는 이러한 사설시조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설시조 향유층 논란의 기저에는 인간관의 차이가 있다. 초계급적 보편성이나 계급적 특수성이냐의 문제는, 욕망과 비판 정신 등이 특정 계급의 특성인가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기반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가령 사설시조를 서민 문학이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평민을 상스럽다고 폄하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편견일 수 있다. 즉 향유층 논의는 인간관에 대한 차이에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6) 김홍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한국학보』 18-3, 1992 및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시적 관심 추이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학보』 19-4, 1993에서 ‘숭고한 당위, 집단 가치 등에 대한 자기 투입 및 예찬의 시선’ 유형으로 분류한 일군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된다.

3.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교육 담론의 문제점

3.1. 유력 학설의 배제

앞에서 살핀 대로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사대부 혹은 중인층 등 지식인 계층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층을 ‘평민’이라고 보는 관점은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5차 교육과정기²⁷⁾의 문학 교과서 중 1종에는 사설시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실려 있다.

[표 1]

<p>이해와 감상²⁸⁾ <꿇도리 저 꿇도리~> 이 시는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의 발흥과 평민 의식의 대두로 하여 나타난 사설시조이다. 사랑하는 입을 그리워하며, 입을 향한 연모의 정을 귀뚜라미에 의탁하여 노래하고 있다. (하략)</p> <p>연구 문제 3. ‘사설시조’와 조선 전기 ‘사대부 시조’의 차이점을 알아보자.(강조는 필자)</p>

위 ‘이해와 감상’의 성격은 사설시조의 갈래를 해설하고 개별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사설시조의 갈래를 해설하는 부분으로, 평민 의식의 대두로 사설시조가 나타났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히 사설시조를 평민의 문학이라고 보는 관점의 소산이다. 따라서 이 활동을 수행한 학습자들은 조선 전기 사대부 시조인 평시조와 사

27) 5차 교육과정은 1987년 3월 31일에 중학교, 같은 해 6월 30일 국민학교, 1988년 3월 31일에 고등학교가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이 1992년 고시되고 적용되기 전까지 활용되던 교육과정이다.

28) 이하의 내용은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구인환, 『문학』, 한샘교과서, 1990, 230면에서 발췌한 것이다.

설시조 간의 형식적·미적·내용적 특질이 향유층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위와 같은 학습 활동은 수렴적인 질문으로서 교과서의 지식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실은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학계의 논의는 교육계로 원활하게 수용되지 않는다. 5차 교육과정기는 이미 평민설에 대한 논의에 오류가 많다는 것이 지적된 이후의 시기임에도 이러한 논의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²⁹⁾ 둘째, 이전 교과서는 후대 교과서의 전범이 되기 때문에, 지식에 설령 ‘오류’가 포함되어도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른바 ‘산문 정신’의 발흥은 사실시조라는 갈래의 발달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 오류도 포함하고 있다. 산문은 운이 없는 문장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형화(長型化) 자체를 산문화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5차 교육과정기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에서도 사실시조를 평민문학으로 규정하는 교과서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³⁰⁾ 특히 다음 교과서들은 지식의 오류를 포함하여 평민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이다.

[표 2]

교과서	작품 및 관련 내용
해냄 에듀 (조정래 외) 문학 II	수록 단원 : III-4. 조선 후기 문학(233쪽, 236쪽) 대상 텍스트 : <매화사>, <두터비 포리를 물고~>, <쇠어마님 머느라기 낫바~> 활동 1. 이 시조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 계층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두터비 포리를 물고~’에 나타난 소재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자. 활동 2. ‘두터비 포리를 물고~’와 ‘쇠어마님 머느라기 낫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29) 조태영, 앞의 글(1986)이 작자층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기의 선후를 확인할 수 있다.

30) 이하의 교과서 예시들에서 강조는 필자가 한 것이며, 사실시조 향유층과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

교과서	작품 및 관련 내용
해냄 에듀 (조정래 외) 문학 II	<p>(3) 조선 후기의 평민 의식 성장과 관련하여 두 작품의 특징과 의의를 말해 보자. 활동 3. 세 편 시조의 작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작자층에 대해 말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조선 후기의 산문 정신과 서민 의식의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설시조는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과격적인 형식에 담았다는 데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중략…>…사설시조의 주요한 작자층은 가객을 비롯한 중인층, 그리고 서민층이었다. 따라서 사대부들이 즐겼던 평시조의 세계에 비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표현 면에서도 기존의 낡은 영탄이나 비유를 탈피하여 실생활 소재들을 동원하여 비유하고 상징함으로써, 진솔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 냈다. 그러면서도 우리 문학 특유의 해학미와 풍자미를 풍부하게 드러냈다.</p> </div>
비상 교평 (유병환 외) 문학 II	<p>수록 단원 : II-3. 봉건 질서의 붕괴와 서민 의식의 성장(147쪽) 대상 텍스트 : <두터비 포리를 물고~>, <쇠어마님 떠느라기 낮바~>, <어이 못 오란다~> 학습 활동 ‘심세하게 이해하기’ 2. 갈래상 특징 다음을 참고하여 사설시조가 중세 전기의 시조와 내용과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말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중세 전기의 시조는 …<…중략…>…간결하고 담백하게 절제된 언어와 형식은 사대부층의 미의식에 부합이 되어’</p> </div>
창비 (박종호 외) 문학 II	<p>수록 단원 : II-4. 민중 의식의 표출과 한글 문학의 융성(145쪽) 대상 텍스트 : <뽕가버순 아해 들리~> ▶한 걸음 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형성된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의 중심 화두였고, 문학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 되었다. 사설시조는 시조가 지닌 3장의 형식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평민들의 현실 의식을 반영한 형식의 변화를 가져왔다.</p>

해냄에듀(조)의 경우, 두 사설시조의 특징과 의의를 평민 의식의 성장에서 찾고 있으므로, 역시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평민층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설시조는 작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지시하는 ‘작자’는 ‘작자층’을 말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의식의 성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내용 혹은 사상적 특질에서 평민 문학적

인 요소를 갖게 되는 동시에, 찾아낸 특징을 평민 문학의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예컨대 ‘두터비 포리를 물고~’의 주제 의식을 평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로 읽어내게 되고, 한편으로 이러한 저항성을 내포한 풍자성은 평민 문학의 미적 특질로 규정된다.

비상교평(유)는 앞서 예시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거의 같은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자층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평시조의 간결·절제된 언어 형식을 사대부의 것으로 규정하여, 이와 대비되는 사설시조의 미의식은 사대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다.

창비(백)에서도 사설시조를 평민들의 현실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역시 작자층을 평민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 교과서는 사설시조의 발생을 실학사상과 관련짓고 있는데, 이는 실학과 사설시조와의 영향 관계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가중된다. 실학의 부흥기와 사설시조가 흥성한 시기는 시기적으로는 겹칠 수 있겠으나, 실학의 문학과 사설시조의 미의식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고리가 없으며, 실학자들과 사설시조의 향유층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개연성도 입증된 바 없다.

평민문학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서민과 중인’ 정도로 규정하는 교과서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표 3]

교과서	작품 및 관련 내용
지학사 (최지현 외) 문학 II	수록 단원 : 3-2. 국문 문학의 확대(119쪽) 대상 텍스트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댁들에 동난지가 사오~>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기] ‘조선 후기 시가의 문학 담당층 확대와 세속화’ 특히 평시조에 비해 작자층이 중간층이나 서민층으로 확대되었으며, 내용 또한 자유분방한 경향을 보였다. 사설시조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 방식을 시적 소재로 삼아...<하략>...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문학 II	수록 단원 : III-4. 조선 후기 문학(233쪽) 대상 텍스트 : <서방님 병 들여 두고~>, <나모도 바회 돌도 업슨 뵈헤~> 활동 다지기 3. 다음을 참고하여 두 작품에 드러나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전략) 평시조의 작자층이 양반 사대부 중심이었던 데 비해, 사설시조는 가객을 비롯한 중간층 부류의 작가들이 지은 작품이 많으며, 서민층에 의해 지어지고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도 여러 편 전해지고 있다.

지학사(晝)의 경우, 평시조의 작자층은 사대부로, 사설시조의 작자층은 중간층 혹은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시조의 시적 소재가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라고 언급한 것은 삶의 천태만상과 정서를 다루는 다양한 사설시조 주제의 폭을 지극히 일부로 국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사설시조가 마치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변별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신사교(이)의 경우에는 평시조의 작자층은 양반 사대부로, 사설시조의 작자층은 중간층과 서민층으로만 보아서, 사대부 계층의 향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위의 교과서들의 공통적으로 평시조의 향유층과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구별하고, 해석과 비평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특히 비상교평(유)와 창비(박)의 경우 대단원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사설시조의 경향이 마치 ‘민중 의식’의 표출이며, ‘시민 의식’의 성장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한 주체를 ‘평민’으로 규정할 경우 평민의 시민 의식과 민중 의식인 저항적 풍자 정신이 성장했으며 그에 따라 사설시조라는 갈래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사설시조의 여러 주제적 경향 중 하나에 불과한 저항성을 사설시조 전체의 일반적 경향인 것처럼 왜곡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매우 유력한 학설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교과서 편찬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3.2. 개념의 모호성과 무매개성

(1) 개념의 모호성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의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오류들은 개념을 모호하게 구사하거나 무매개적으로 연결짓는 데서 비롯된다. 무매

개적 개념은 오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정이 쉬운 반면, 모호한 개념은 오류가 나타나도 교정하기가 어렵다.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서민’ 개념과 ‘산문 정신’이라는 두 용어의 모호성을 밝히려 한다. 이 두 용어는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구사될 필요성이 있는 용어들이다.

‘서민(庶民)’이라는 용어는 ‘평민’이라는 용어와 다르다. ‘두루, 여러’의 뜻을 지닌 ‘庶’라는 글자에도 나타나듯이 ‘서민’은 양반과 천민을 제외하고 방외인, 중인 등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평민’은 특권층인 양반, 기득권을 일부 나누어 가진 지식인 계층으로서의 중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되었던 천민 등과 계층적으로 변별되는 사람들을 이른다.

따라서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서민’으로 보는 것과 ‘평민’으로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전술한 대로 고정옥은 사설시조의 작자층을 ‘신진중인작가 / 창곡가 / 창극가 / 부녀자 / 기녀 / 민요시창자 / 몰락한 양반’으로 나누었다. 이럴 경우 향유층에 중인층을 비롯한 여러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민’이라고 칭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서민’은 ‘평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 현장에서도 ‘서민’과 ‘평민’은 혼재되어 쓰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학사(조)와 좋은책신사고(이)의 교과서들에서는 ‘중간층이나 서민층’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서민’을 평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서민 개념을 여러 계층을 포괄하는 말로써 쓰고, 이에 따라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중인층을 포함한 서민 계층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민 개념과 평민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오해가 초래되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사설시조가 ‘평민=서민’이 창작한 시조라는 설명이 거의 성서적 지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대상을 같은 용어로 지칭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 간의 차이점이 은폐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쓰이는 개념어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어떤 범주에서 구사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학술 담론에서 활용되는 개념과의 차이점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학계의 담론이 교육 담론에 수용되면서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변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 무엇이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혀 차이점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분석하며 예시했듯 많은 교과서에서 사설시조의 성립 배경으로 들고 있는 ‘산문 정신’을 살펴보려 한다. 산문 정신은 보통 ‘길이가 길다, 장황하다, 수다스럽다’ 등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원래 산문이란 율문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율격적 자질이 없는 문장을 일컬었다. 사설시조의 장형화 경향은 반복, 병렬, 열거를 따른 것인데, 이때 율격적 자질이 생성되면서 사설시조의 리듬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사설시조의 장형화된 문체는 산문 정신의 발로가 아니라 평시조의 정형화된 율격과는 다른 종류의 율격적 자질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

또한 산문 정신이 ‘이야기성, 서사성’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함축성과 비교해 볼 때 이야기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된다. 그러나 산문 정신은 서사성을 포함한 말이 아니다. 사실 산문 정신이란 그 실체가 모호한 말로서, 조선 후기 국문학 장르 전반에 나타나는 진솔하고 유희적인 표현들이 장형화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양관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은 더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활용됨으로써 학습자들은 운문과 산문의 특질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하게 된다.³¹⁾ 이처럼 ‘산문 정신’은 학술 담론으로서도 설명력이

31) 현대시에 대한 설명에서도 ‘산문시’나 ‘산문체’라는 용어는 자주 활용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산문시’에는 운율이 없거나 ‘산문체’를 ‘장시(長詩)’라고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 개념의 부정확한 구사가 만드는 폐해이다.

떨어지질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성찰되지 않은 채로 교육 담론으로 수용된 것이라 하겠다.

(2) 개념의 무매개성

앞서 예시한 교과서 중 창비(박)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형성된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 사회의 중심 화두였고, 문학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기술은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의 문학적 변화가 실학사상이 대두된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실학사상과 사설시조는 같은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 외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 실학사상을 설파했던 계층과 사설시조 향유층 간에 서로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다는 점, 사설시조에 드러난다고 설명되는 실학사상의 일면이 사실은 실학사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은 무매개적인 논리에 기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실학사상은 유학의 한 조류로서 주기론이나 명분론에 대한 반성으로서 등장한 사상적 조류다. 근대적 인식 전환의 한 요소였기는 했으나 실학사상을 논의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로 한문학 향유 계층이었던 사대부였다는 점에서 국문 문학인 사설시조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예컨대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가 ‘계갯’을 가리키기 위해 ‘동난지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시조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라는 실학사상의 반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지식인층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문이 구어와 일치하므로 쉽고 편리한 문어라고는 보면서 사유의 도구로서는 부족한 언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이나 철리, 설명 등의 정교한 인식과 추론이 필요한 글에서는 한문을 썼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식 설명을 따라가면 그들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부정한다는 역설이 생기게 된다.

사설시조의 근대성은 실학사상을 드러내는 측면이라기보다 일상성의 발

견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일상성과 근대성 간의 관계도 현재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³²⁾ 실학사상이 근대성의 일면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사설시조의 근대성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안고 있는 무매개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인과적 관계에 있지 않는 개념들이 인과 관계로 엮여서 기술된 사례라 하겠다.

4. 학술 담론과의 관계를 통해 본 교육 담론의 이중성

4.1.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관계

이 장에서는 교육 담론이 학술 담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한 지식은 교과서에 유입될 당시 정설로 여겨졌던 ‘평민설’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설시조에 대해 5차 교과서에서 ‘조선 후기 산문 정신의 발흥과 평민 의식의 대두로 하여 나타났다.’고 설명한 것은 ‘평민설’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고정옥의 ‘서민 시조’, 정병욱의 ‘산문정신과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평민가객들의 등장’, 박을수의 ‘양란을 겪은 후 서민계급의 각성과 산문정신의 발로’ 등의 설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민 혹은 평민’, ‘산문정신’, ‘실학 사상’ 등은 교과서에서 사설시조의 향유 배경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이처럼 교수-학습 국면에서 지식은 주류 학술 담론에 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술 지식의 생산 주체는 연구자들이고, 현장 교사들은 학습자 수

32) 박상영,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 한국시조학회, 2012 참조

준에 맞게 교육 내용으로 가공된 학술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유통시킨다. 즉 학술계에서의 연구 결과 중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 내용이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교육 담론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실릴 작품이 선정될 때에도 이런 ‘주류 학술 담론’에 의해 승인된 작품이 선정되게 된다. 즉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은 모두 ‘희락적 요소나 어휘, 대화체, 성의 노골적 묘사’ 등이 나타나는 작품군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에서 진술한 대로 사실시조 작품 중에는 평시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³³⁾ 이러한 작품군들이 교육 내용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 교육 담론이 학술 담론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교육 담론이 학술 담론에 의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술 현장은 끊임없는 담론 투쟁의 장이다. 즉 기존에 정설로 여겨졌던 지식이 도전을 받고 논쟁을 통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실시조의 향유층이 평민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비주류 지식이 되었다. 최근 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향유층이 평민이냐 아니냐보다 오히려 사대부인가 중인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계의 주류 담론이 이미 변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사실시조를 평민 문학으로 보는 관점은 여전히 공고하다. 즉 학술 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식이 교과서에 계속해서 살아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교육 담론이 학술 담론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술계의 주류 담론이 변한다고 해서 교과서에 실린 지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식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교과서는 학술 담론에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인

33) 교육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시조의 특성을 가진 작품을 이른바 ‘주류 작품군’으로, 평시조의 미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을 이른바 ‘변두리 작품군’으로 나누는 것은 임의적이고 상대적인 구별이다. 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40면 참조.

양면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4.2. 교육 담론의 양면성의 발생 원인과 교육적 가능성

교육 담론에서 이중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교육 담론이 학계와 달리 해석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을 회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학교육의 실행 국면에서 지식은 교육 내용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지식이 새로 유입될 경우 교수-학습 국면에서도 담론 투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논쟁에 대한 거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학계와 달리 교육 담론에서는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해석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이는 사실시조의 향유층을 배우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받는 공식적인 평가가 선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럴 경우 교과서는 안정성을 지향하고, 지식으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유입은 막힌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지식의 단일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 시의 준거도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학술 담론이 아니라 선행 교과서가 된다. 교실에서는 이른바 ‘참고서’를 통해 지식이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참고서식 기술 방식은 주로 인과적 기술 이라기보다는 맥락을 거세한 채 단편적으로 지식을 제시하는 기술 방식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식들은 고정된 명제가 된다. 모호하고 무매개적인 개념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특정 지식이 교육 현장에서 고착화되면 교육 현장 고유의 지식 재생산 구조를 거치며 그 위상이 공고해진다.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도 기존의 고정된 지식에 맞는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교과서에 신게 된다. 현재의 교과서의 지식과 관련된 활동은 발산적인 반응을 유도하기보다 수렴

적 정답을 유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활동 중심의 교과서에서도 지식을 다루는 활동은 교과서 작품의 ‘정전성’과 지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활동 중심의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교과서적 지식은 ‘성서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지식은 학계에서 생산된 지식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다. 교과서에 실린 지식은 ‘다수가 동의하는 지식’이 되어 교재의 ‘성서화’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현상이 선발 중심의 평가관에서 초래된 것이라 할 지라도,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잘못된 지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식을 수용·생산해 나가야 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이제부터는 교육 담론의 양면성이 오히려 학습자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원한 진리는 없으므로 학문적 진리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탐구’하는 인간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내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문적 갈등 상황을 은폐하지 않고 노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학문관의 발달 단계를 4수준으로 보고, 이에 따라 학문 탐구자로서 학생들의 수준도 네 층위로 보고 있는 한 설명³⁴⁾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34)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아래의 표도 이 책 161-163면의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기술한 것이고 부가적인 설명도 이 책에 따른다.

[표 4]

수준 1	사실적인 정보와 지식을 구별하지 못함. 지식이란 사실에 대한 낱말의 정보를 합한 것과 같음. 교육이란 교수와 교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 학생들은 이른바 ‘사실들’을 진위(眞僞)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위의 중간이란 없다고 생각함. 페리는 이 신념체계를 ‘이원주의dualism’라고 명명.
수준 2	어떤 지식이든지 의문과 불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 사실이 아닌 것은 의견으로 치부. 사실이 아닌 모든 의견은 동등한 지위를 지님. 학생들은 의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견해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음. 따라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교수와 자신이 다른 견해를 가져서라고 생각함. 페리는 이 신념체계를 ‘다수주의multiplicity’라고 명명.
수준 3	단순한 견해와 근거 있는 견해가 차이가 있음. 학생들은 의견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대라고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알게 되며, 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획득함. 논쟁, 문제, 교재를 분석할 수 있게 됨. ‘상대주의relativism’라고 명명.
수준 4	인식의 절대성보다 수준상의 상대성을 인정함. 상대적인 타당성은 모종의 절차적인 분석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는 학문관. 옳고 그름에 대한 외부의 확신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신념을 선택하고, 이 신념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 창의적으로 찾아낸 것일 수도 있음. 이 인식의 최종 책임은 인식자 자신에게 돌아감. 페리는 이 수준을 ‘헌신적(獻身的) 상대주의(commitment in relativism)’라고 명명.

가장 높은 수준은 수준 4이다. 학술 담론은 이상적으로 수준 4를 지향한다. 이 수준은 하버드 학생들에게서도 잘 발견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인식을 책임지는 단계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식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으로 이의 도달 수준을 확언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학교 교육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수준 3까지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수준 4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준 3이 학교 교육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수준 1과 수준 2에 머물러 있다. 원래 수준 1에 머물러 있던 것이, 학습자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수준 2를 갖추는 것을 지향하기도 했다. 수행평가나 개별 포트폴리오 평가 등이 강화되면서

이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로운 해석이나 감상을 보장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치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준 3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은 수준 1이다. 장상호는 이와 관련하여 이가주의적 학문관에 따른 교과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가주의적 학문관에 의하면 진리와 허위 사이에 중간의 영역은 있을 수 없다. 진리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내용은 진리이고, 그에 모순되는 여타의 모든 것은 허위이다. 이러한 신화 속에서 교사는 진리의 대변자이고, 학생은 허위로 물들어 있다는 도식에 준한 의례적인 게임이 진행된다. 교과서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중간의 사다리는 있을 수 없다. 그 귀결은 일방적인 교조화이다.(…중략…)여기에는 의문, 발견, 의견교환, 토론, 반성, 비판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활동은 교과서와 교사에 대한 모독이고, 시간의 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³⁵⁾

이는 프레이리가 말한 바 ‘은행 저금식 교육’의 단면이기도 하다. 이는 교과서가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의견을 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근거나 이유를 대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수준 3을 지향하는 교과서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바람직한 교과서란 학습자들이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준 3을 유도할 수 있는 교과서다. 이러한 교과서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논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논쟁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해야 한다.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은 이 점에서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평시조와 달리 사설시조의 향유층 논란이 쟁점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사설시조의 작자가 익명으로 전해지므로 추측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³⁶⁾ 그러나 이토록 침예하게 전개된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설이든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다.

35) 장상호, 앞의 책, 181면.

36) 조태영, 「사설시조의 향유층」,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1986, 381면.

이에 사설시조의 향유층을 이가주의적인 지식으로서 다루지 않고 단지 추정된 사실로 간주하여 지식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다음의 교과서를 참고할 만하다. 천재(정)에서는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해 사대부로 보는 관점과 서민과 중인으로 보는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표 5]

교과서	작품 및 관련 내용	
천재 교과서 (정재찬 외) 문학 II	수록 단원 : II-2. 한국 문학의 역사(145쪽) 대상 텍스트 : <어이 못 오던가~> ▶ 맥락 속으로 3(2) ‘어이 못 오던가~’와 같은 사설시조에 대해서는 향유 계층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다음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토론해 보자.	
	[견해 1]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인 평시조와 달리 사설시조는 성적 욕망을 포함한 본능적 요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설시조는 중인을 포함한 서민들이 향유했을 것이다.	[견해 2] 사대부들도 유희의 공간에 서라면 본능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다.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은 그 내용 때문에 익명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대부들도 사설시조의 향유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 교과서는 교육 담론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학설과 학술계의 담론을 소개하여 학습자들의 토론을 유도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했다. ‘중인설’과 ‘평민설’을 한데 묶어서 이를 다시 ‘사대부설’과 대비한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학설의 근거까지를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전제된 인간관’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까지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논쟁적인 가설 혹은 이미 폐기된 오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시사한다. 교육이란 그 존재 가치 자체가 오류 가능성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늘 회의의 대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은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해하고 해석할 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점

에서 잘못된 사실로 밝혀진 가설, 혹은 논쟁적인 가설 등도 교육적으로는 의미를 지닌다.

학술 담론에서 논쟁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오류가 최소화된 가설을 밝혀내는 데 있다. 또한 잘못된 사실로 밝혀진 가설은 이미 효용 가치를 상실한 가설이다. 그러나 교육 담론에서 논쟁의 목적은 오류가 없는 가설을 밝혀내는 것이라기보다 학습자의 성장을 이끄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잘못된 사실로 밝혀진 가설이 학술 담론에서는 폐기되는 것과 달리 교육 담론에서는 여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인식론에서 추구하는 것은 최후의 증명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나 생각이 다른 것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질서 있는 상대주의적 입장”³⁷⁾이어야 한다.

5.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소통 활성화 방안

교육 현장과 학술 담론은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소통은 학습자의 발달이나 성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계의 학문적 갈등 상황은 회피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 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제언으로 남기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재생산 구조가 공고한 교과서 편찬 방식에서 탈피되어야 하며, 교과서는 학술 담론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인 실체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학술 담론의 갈등을 교육 담론에 수용하게 되면 양방향의 소통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론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 학생들은 사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과정,

37) 장상호, 앞의 책, 418면.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 인식 능력이 성장한다.

구성주의적 지식관이 대두하면서 교과서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구성주의에 따른 교과서관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과서를 지향한다. 열린 교과서관은 교과서를 전범으로 간주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재 중 하나로 간주하며 모방 학습보다 비판 학습을 강조하고 활동 및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교과서는 수업에서 이미 가르치기로 결정된 지식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닫힌 교과서에 가까웠다.³⁸⁾

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의 발달 위계를 고려해 본다면, 낮은 수준에서는 지식보다 활동 자체가 중시되지만 높은 수준에서는 지식 자체에 대해서도 다루어진다. 따라서 교재는 지식과 활동의 관계를 고려하고, 교사와 학습자 변인의 유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열린 교과서관 궁극적으로 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를 지식·경험·수행·태도로 나누었을 때³⁹⁾ 태도 형성을 지향하는 교과서여야 한다. 이때 태도란 인지적·정의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관 역시 이 관계 속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과서 구조를 닫힌/열린 교과서관에 따라 분석하면, 온전히 열린 교과서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식을 다루는 측면은 닫힌 교과서관에 따르고 활동을 많이 넣는 측면에서 열린 교과서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드러나는 정도인 기형적인 구조라 하겠다.

교과서는 5차 이후 독자 중심의 열린 교과서를 지향하며 활동 중심의 교과서로 재편되었다.⁴⁰⁾ 그러나 학습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8)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1996, 97-98면.

39)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2002.

40) 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144면에는 「관동별곡」이 실린 단원들을 분석하여 교재사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비교한 표가 있다. 여기에서는 5차 이후부터는 구성주의 지식관의 영향을 받아 활동 중심, 독자 중심의 교과서로 재편되었고, 지식 중심의 교과서가 경험 중심의 교과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교과서가 구성되다 보니, ‘지식’은 학습활동의 보조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지식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할 기회는 드물게 제공된다. 즉 ‘지식’과 관련하여 열린 교과서가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식과 관련해서도 학습자들이 지식에 대해 성찰하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활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물론 문화의 계승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서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적 성찰’을 위해서라도 쟁점이 되는 지식 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쟁점 자체를 교육 주체들에게 노출시켜야 한다. 즉 지식을 확인하는 활동이 아니라 적절한 안내를 통해 지식 자체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활동과 학습자가 지식을 주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다. 지식과 관련된 진정한 ‘발산적 질문’은 궁극적으로는 텍스트 해석뿐만 아니라 비평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구성될 수 있다. 현장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철저히 교사의 몫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에 관한 내용 전문성과 수업의 조직에 대한 교육공학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구성주의 지식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해석의 ‘무정부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4]의 수준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 학습자들의 인식 능력은 그 수준에서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때 교사의 주체성 또한 강조되지 않고 단지 학습자에게 맡길 경우에는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실제 교수-학습 국면에서 해석의 무정부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지식의 ‘무정부주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적절한 안내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스스로 교과서의 빈자리를 적절히 채울 수 있고 학습자들이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교

과서를 구성할 때는 교사에게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수용하여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맥락적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과서의 빈자리를 적절히 채운다는 것은 학습자 스스로 지니고 있기 힘든 전문적 지식 수준에서의 맥락적 지식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 이론으로 설명하면 학습자의 기대 지평을 원래보다 넓게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빈자리를 채워 인식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설시조 향유층 논란의 경우, 일차적으로 양반, 중인, 평민으로 보는 관점이 모두 제공될 것이다. 교사는 사설시조 향유층과 관련해서는 해석과 비평 측면에서 달라진다는 학습자의 인식을 유도하고, 동시에 그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주제나 미의식 측면에서 평시조와 변별되지 않는 사설시조 작품의 존재도 부각시킬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로부터 단일하게 수렴하는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지평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비교, 분석,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국면에서 지식을 재구조화해 내는 것이다.

즉 교사의 전문성은 지식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방기하지 않고 인식 지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과 그 전제를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성 있는 교사는 먼저 교과서의 지식을 재구성하여 수용하는 독자가 된다. 나아가 전문성이 있는 교사는 학계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의 기저에 있는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한편으로 교재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재를 연구하는 교원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및 참고문헌

<자료>

▶ 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구인환 외, 『문학』, 한샘 교과서, 1990.

▶ 2007 개정 교육과정기 교과서

박종호 외, 『문학Ⅱ』, 창비, 2012.

유병환 외, 『문학Ⅱ』, 비상교평, 2012.

이승원 외, 『문학Ⅱ』, 좋은책신사고, 2012.

정재찬 외, 『문학Ⅱ』, 천재교과서, 2012.

조정래 외, 『문학Ⅱ』, 해냄에듀, 2012.

최지현 외, 『문학Ⅱ』, 지학사, 2012.

<참고문헌>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4, 민족문학사학회, 1993.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 안암어문학회, 1991.

고정옥 저, 김용찬 교주, 『교주 고장시조선주』, 보고서, 2005.

우리어문학회,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고정희, 「사설시조의 장형성과 이행기 문학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구자균, 『평민문학사』, 민족문화사, 1982.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2002.

_____, 『시가시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_____,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김용찬,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지형도』, 보고서, 200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_____, 「사설시조의 장르형성 재론」, 『대동문화연구』 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6.
- _____,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미의식」,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김홍규, 「사설시조의 시적 시선 유형과 그 변모」, 『한국학보』 18-3, 1992.
- _____,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시적 관심 추이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학보』 19-4, 1993.
- 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 박상영, 「사설시조에 드러난 일상성 담론과 미학, 그리고 근대」, 『시조학논총』 37, 한국시조학회, 2012.
- 박을수, 『한국시조문학전사』, 성문각, 1978.
- _____, 편, 『한국시조대사전』上, 아세아문화사, 1992.
-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일조각, 1980.
-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 1986.
-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1986.
- 장사훈, 『시조음악론』, 국악학회, 1973.
-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정병욱, 「시가의 운율과 형태」,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조태영, 「사설시조의 향유층」,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1986.
- 조혜숙, 「사설시조의 담당층과 문학적 성격」,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 지신호,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최동원, 「장시조의 생성과 그 시대적 전개」, 『고시조론』, 삼영사, 1980.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1996.

Abstract

A Critical Essay on the Difference between Academic Discourse and Educational Discourse

Ryu, Su-yeol · Lee, Jee-sun · Kim, Se-lim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phenomenon that academic discourse and educational discourse appears differently and to propose the way of communication between two discourses. The reason of this phenomenon seems to be dependence and independence of the educational discourse. Therefore, by analyzing reader and writer of saseolsijo,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the educational discourses preclude the influential theory, secondly, the idea is to use uncertainty. But a thorny issue is rather good for education. Because it can make good the thinking of the learner. Also, this is a way to activ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c discourse and educational discourse. For this purpose,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accurate and teachers should have the expertise.

⊕ **Key Words** : saseolsijo, readers and writers, literature education, academic discourse, educational discourse, communication

· 투고일 : 2015. 4. 30. 심사 완료일 : 2015. 6. 1. 게재 확정일 : 2015. 6. 10.